

최선추정과 계리사의 위기

이 현 규

한국보험계리사회 부회장
RGA재보험 전무



12년 전쯤 생명보험사 계리 담당 임원이었던 저는 IFRS17 도입 시 영향에 대해 경영전략 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BEL, CSM등의 개념에 대해 계리부서를 제외하면 익숙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보다는 주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부채를 시가평가 하게 되면 지금보다 부채가 많이 증가해서 순자산이 하락하고, 당기순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품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썰렁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0년 이상 매년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회계제도의 변경으로 부실해 진다면 그건 회계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영업담당 임원들은 경쟁사보다 먼저 예정이율 인하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면 IFRS17이 도입되기도 전에 신계약이 안 들어와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IFRS17 준비는 보유계약의 질을 개선하는 것 보다는 업계가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도입을 최대한 늦추고 각종 가정산출 과정에서 재무적 영향을 축소하는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IFRS17의 도입시기는 계속 연기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23년에 도입되었지만, CSM 확보 수단으로서 신계약 판매활성화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유계약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길어지고 보장금액의 한도는 확대되고 보험료는 저렴해지면서 수수료는 많이 지급하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수익성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미래의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한 우려보다는 당장의 신계약 판매로 인한 CSM 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작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판매한 건강보험 신계약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금지급율이 100%를 상회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고, 손실인식계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있습니다. 예실차가 10% 이상 발생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실효해약율도 예상보다 많이 높아서 실효 쇼크를 반영하면 CSM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RS17 도입 후 한도 제한 없이 이연되는 신계약비도 실효해약율 최적가정의 예실차가 발생할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상품 판매 당시 계리사들이 최선추정으로 산출한 수익성이 실제와 계속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보험업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보험계리사의 위기입니다.

최근 감독당국에서도 예실차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계리가정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합리적인 추정보다는 어떻게든 BEL의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보수적으로 BEL을 산출할 필요는 없지만, BEL을 줄여서 CSM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각종 규정의 빈틈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머지 않아 계리사는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계리사들이 예측한 미래의 손익이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 예상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여의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켰으면 합니다.